

기록, 시차, 젠더

- 기록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82년생 김지영』 읽기 -

강수환*

〈차 례〉

1. 들어가며
2. 디지털 매체의 점유권과 담론의 시차
3. 『82년생 김지영』 분석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82년생 김지영』 현상의 논의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수사로는 ‘당사자성’, ‘공감’, ‘이입’ 등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텍스트는 남성 정신 상담의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실제 김지영의 목소리와 내면을 지워 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동일시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글은 소설이 ‘재현=대표=표상의 체계’의 논리로 독자들을 수렴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폭적인 공감과 정서의 변용을 끌어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기록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안팎을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나, 크게는 오늘날 디지털 담론 네트워크의 상황과 문학 사이의 관계를 범박하게나마 고찰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PC 중심이 아닌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시대에 이르면서 온라인 담론 네트워크에는 미묘한 토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PC와 달리 스마트폰은 한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매체와 대응함으로써 시공간을 떠나 사용자에게 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가정 내 PC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접했던 젠더 집단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던 시기와는 다른 물질 조건을 형성했고 ‘젠더 간 시차’의 상쇄는 그로 인한 효과로 지목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이 변화한 담론 네트워크의 상황이 본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일으켰는지를 분석한다.

*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강사

[주제어] 『82년생 김지영』, 매체, 기록, 시차, 젠더, 담론 네트워크

1. 들어가며

“자연, 사랑, 여성-이들은 1800년식 기록시스템에서 모두 동의어다.”¹⁾ 주지하다시피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19세기의 기록시스템에서 여성은 글쓰기/기록의 주체가 아닌 그 배면의 근원적 영감 내지는 독자의 자리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자기(typewriter)가 출현하고, 곧 여성들이 타자수(typewriter)로서 문자를 기록하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종전의 기록시스템과 여성 사이의 관계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데, 키틀러는 이러한 상황을 향해 “타자기는 다만 글쓰기의 성별을 뒤집을 뿐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문학의 물질적 토대가 뒤집힌다”고 진단했다.²⁾ 이는 여성이 타자기-타자수로 글쓰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키틀러의 방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문자 데이터의 흐름을 기록·저장·송수신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여하게 되면서 19세기의 남성-필자/여성-독자로 양분된 젠더 구도의 펜-손글씨 체제 아래서 언어를 다루던³⁾ 시대적 조건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틀러의 논의에서 젠더는 핵심이기보다는 사실상 부차적인 주제에 더 가깝지만,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젠더적 관점에서 미디어 이론을 다룰 때 키틀러의 작업은 종종 중요한 참조점으로 호출되곤 했다.⁴⁾ 이는 비록 충분치는 않더라도, 데이터 프로세싱의 체계에서 젠더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이 생산하는 효과에 관한 매체적 논의의 중요한 단초를 키틀러가

1)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윤원화 옮김, 문학동네, 2015, 126쪽.

2) 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 유현주·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9, 338쪽.

3) 이 지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문자로서의 언어란 곧 손으로 쓰여진 손글씨(Handschrift)를 말한다”는 전언을 대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키틀러, 위의 책, 357쪽에서 재인용.

4) 젠더 이론적 미디어 연구들이 (긍정적으로든 비판적으로든) 키틀러의 매체론을 참조 및 인용해온 맥락적 토대, 그리고 이들 연구와 키틀러의 이론 사이의 결합 양상에 관해서는 유현주의 『키틀러와 젠더: 담론의 채널에서 여성은 매체와 어떻게 결합하는가』(『세계문화비교연구』 제66호, 세계문화비교학회, 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키틀러의 말처럼 20세기의 기록시스템을 구축했던 아날로그 미디어는 컴퓨터라는 디지털 미디어 속으로 편입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타자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자기가 문자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던 시대는 꽤 오래전 막을 내렸으며, ‘문자 프로세싱’(word processing)의 역할은 컴퓨터의 소관이 되었다. 그러므로 타자기와 여성을 둘러싼 키틀러의 발견은, 오늘날의 미디어 조건 위에서 재차 사유될 필요가 있다.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이 사실이라면⁵⁾, 오늘날 우리 앞으로 제출된 문학 역시 현재의 매체적 상황의 자장 안에서 “결정”된 산물에 해당할 것이다. 이 글이 중심으로 분석할 텍스트는 조남주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이다. 이 텍스트는 오늘날 대표적인 ‘여성 서사’로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작품이다. 본 소설을 둘러싼 다수의 논의가 존재하나, 본고는 이 텍스트가 특징적으로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82년생 김지영』은 표제처럼 1982년생인 김지영 씨 개인이 여성으로서 통과해 온 경험들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소설 말미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2016년」이라는 장에서 김지영의 상담의인 남성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쓰였음이 암시된다.

매체적 관점에서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논의로 허윤은 이 소설이 독자들의 독서 행위를 통해 일상화된 감각을 새롭게 분할하며 묶 없는 자에게 묶을 부여하는(랑시에르) 새로운 문학의 정치성을 만들어냈다고 평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독자들이 “책읽기를 통해서 페미니즘을 학습하며, 책읽기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근거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이 해석들을 “SNS라는 공론장을 통해서 상호참조적으로 매개”하는 양상을 살폈다.⁶⁾ 또한 김미정은 이 소설을 둘러싼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현상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오늘날 뉴미디어의 등장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 대중 정동을

5) 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 7쪽.

6)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30, 138쪽 참조.

구축하는지에 주목한 바 있다.⁷⁾

이렇듯 매체에 주안점을 두어 본 텍스트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때의 초점은 대부분 수용자에 해당하는 독자(또는 비평가) 집단을 향해 있으며,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의 분석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상황이다. 본고는 이 지점에 착안하여 기록, 시차(時差), 젠더라는 키워드를 통해 오늘날의 기록 장치와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에 영향을 행사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디지털 매체의 점유권과 담론의 시차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록에 관한 부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키틀러의 진술에 전적으로 기대어 논의를 펼치기에는 전술했듯 오늘날 문자 데이터를 둘러싼 기록시스템에서 타자기는 더 이상 주도적인 미디어가 아닌 까닭에서다. 컴퓨터는 문자, 음성, 영상 등 20세기 아날로그 미디어가 발생시킨 일련의 기술적 문자(技術的文字, technological grammatization)의⁸⁾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하여 하나의 매체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기록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의한 기록은 종전과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타자기에 관한 키틀러의 논의는 “구술하는 남성저자, 타이핑하는

7) 김미정,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51호, 2020, 304~308쪽 참조.

8) 미디어 학자 이시다 히데타카는 20세기의 대표적 아날로그 미디어인 사진(photograph), 축음기(phonograph), 영화(cinematograph)를 독자적인 문자이자 기록체계인 ‘기술적 문자’(technological grammatization)로 바라보았다. 실제로 위의 세 미디어는 빛(photo), 음성(phono), 운동(cinemat)에 대한 문자(-graph)로 각각 직역될 수 있는데, 이렇듯 그는 사진, 축음기, 영화란 기술을 통해 빛, 음성, 운동에 대한 문자화(grammatization) 프로세싱으로 기록한 결과로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이시다 히데타카,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윤대석 옮김, 사회평론, 2017, 69~73쪽 참조. 한편, 여기서 이시다가 말하는 ‘문자화’는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기술적 글쓰기 개념을 참조한 것으로 이는 Bernard Stiegler, *Technics and Time, I*, trans. Richard Beardsworth & George Colli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여성타자수, 무성의 기계”⁹⁾라는 구도 속에서 작동하지만,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라는 표현에서도 보듯, 컴퓨터에서의 기록은 대부분 매체를 소유한 개인과 무성의 기계 사이의 매개로부터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문자 데이터는 더는 책의 형태가 아닌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통해 상시적인 기록을 남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입력한 적극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단순한 접속, 조회, 시청 이력 등의 무의식적인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가 남긴 위와 같은 의식적·무의식적 기록 데이터를 컴퓨터가 프로세싱하여 역으로 알고리즘이 특정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키틀러의 『기록시스템 1800·1900』(*Aufschreibesysteme 1800·1900*)은 영역되는 과정에서 『담론 네트워크』(*Discourse Networks*)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피터스가 잘 요약했듯 그의 기록시스템 이론이 “어머니 혹은 의사 등과 같은 체화된 행위자, 교육 정책과 정신의학과 같은 문화적 처리를 거치는 알고리즘, 글쓰기나 축음기와 같은 기술적 미디어”라는 세 가지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닌 데서 비롯된다.¹⁰⁾ 영역 표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키틀러에게 한 시대의 담론과 정신은 해당 네트워크의 효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글쓰기의 성별” 관계가 당대 “문학의 물질적 토대”를 역전시킬 만큼의 변수였다는 키틀러의 말을 떠올려본다면, 담론 네트워크의 한 축인 기록(또는 기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이들의 젠더는 유의미한 인자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비록 용어는 “개인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PC의 보유 수량은 대체로 한정적이므로,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가구 구성원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마다 PC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구성원과 사용 시간 등을 조율해야만 한다. 문제는 PC의 사용 권한이 각자에게 공평히 분배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이 배타적으로 더 많은 소유권을 점하게 되는 경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하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시간(2008-2021)’

9) 유현주, 앞의 글, 1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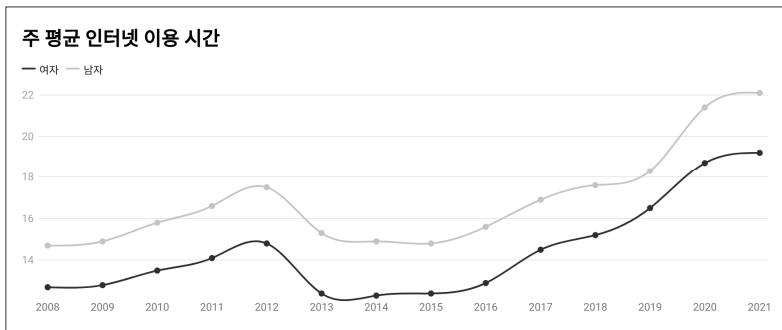
10) 존 더럼 피터스, 『자연과 미디어』, 이희은 옮김, 컬처북, 2018, 54쪽.

통계를 살펴보면 매해 남성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절대적 인터넷 이용 시간을 지시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등 상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매체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시기, 즉 일반적으로 가정 내 PC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이 일반적인 시기에 한해 이 격차를 바라본다면, 해당 매체에 대한 점유권이 누군가를 향해 기울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지표로 읽힐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그 결과는 남성 쪽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PC를 중심으로 한 담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시대의 그것은, 비록 똑같은 디지털 기술 체계에 기초한 글쓰기-기록이라 하더라도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매체의 소유자에게 — 충분한 양의 망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만 확보된다면 — 전적인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형) ‘개인용 컴퓨터’라 할 만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소간 특정 젠더 구성원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매체적 환경 조건이 PC 중심 시대의 여건이었다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러한 한계가 다소간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용자가 담론을 생성하는 디지털 데이터 프로세싱에 즉각 접근할 수 있는가 혹은 미묘하게 지연된 참여를 불러오는가와 같은 시차

11) 본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자통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1D0511R&conn_path=I2
(최종검색: 2022.11.20.)



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C 중심의 시대에서 여성과 남성 집단은 거의 동시적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자의 기록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매체 사용의 권한을 쥔 이들이 구성하고 생성한 기록·담론 위에 다른 한 집단이 시차적으로 뒤늦게 혹은 사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구조가 은폐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 인터넷을 거점으로 생성되는 담론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적극적 기록뿐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긴 무의식적인 행위 반응 등의 기록 데이터까지 모두 반영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관심사, 주의력, 알고리즘, 검색 결과, (연관) 검색어 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담론 생성에 기여한다. 즉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매체를 사용하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반응을 남기는 것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담론과 정신을 생산하는 데 양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다.

물론 이때의 시차란 인간의 지각이나 감각적 경험보다는 ‘기계적 시간’의 차원에 기초한 것이겠다. 지빌레 크레머(Sybille Krämer)가 말하듯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처리 과정은 인간의 지각 너머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이를 프로세싱한다고 지각하지만, 크레머의 말처럼 “실시간 분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비록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범위이기도 하나, 컴퓨터 처리의 모든 단계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¹²⁾ 무엇보다 이때의 시간은 (매체 고유의 조작 가능성 위에서 발생하는) 매체로부터 생성된 시간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담론 네트워크에서 “시간이란 더 이상 우리의 지각 또는 경험의 보편적 형태가 아닌, 기술적 접근성의 보편적 형태가 되어가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기술적 시차는 매체에 대한 조작 가능성과 접근성으로부터 발생하되, 인간의 지각 차원에서 감지하거나 계산하기 어렵다. 다만, 네트워크의 효과로서 구성된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12) Sybille Krämer, “The Cultural Techniques of Time Axis Manipul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3.7-8, 2006, p.103.

13) *Ibid.*, p.106.

사후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 공유, 확산 등의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하여 담론을 생산하는 물적 토대 가운데 특히 젠더와 연령대의 차원에서 다양성을 지닌 사용자들이 조금 더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2년 초까지 전체 사용자의 53.4%였던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6년 말 90%대에 진입하는데, 이 가운데 젊은 세대에 속하는 20대 사용자는 이미 2012년 상반기에 90%대의 사용률을 보였고 30대는 같은 해 하반기에 90%대에 이르게 된다.¹⁴⁾ 궁교롭게도 201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라 불리는 폭발적 현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목격된다. 영화학자 손희정은 이 표현을 고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것이 “200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영 페미니스트들의 온라인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문화 운동의 계보로 엮을 수 없는 배경으로부터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운동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¹⁵⁾

물론 이 시기에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2015), 강남역 살인사건(2016), 예술계 내 성폭력 공론화 사건(2016), 세계적 #MeToo 운동(2017) 등등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기폭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앞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계보로 엮을 수 없는 (...)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듯한 페미니즘 운동이 새로이 촉발하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일정 궤도에 올라 기록과 담론 구성에 있어 젠더의 시차가 좁혀지게 된 매체적 토대의 변화가 일정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다.¹⁶⁾

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2-2018 스마트폰 사용률, 현재 사용 & 향후 구입 예정 브랜드」, 2018.7.2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43>(최종검색: 2022.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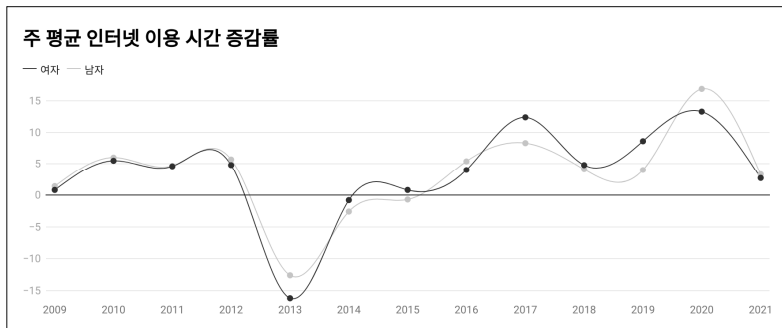
15)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15쪽.

16) 여성들이 디지털 담론 네트워크에 더 많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게 된 양상을 보여주는 간접적 통계들은 다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게임계에서 오랜 시간 보여 온 사용자 간 성비 불균형은 남성 사용자에게 비교적 가정 내 PC 사용의 배타적 독점권이 더 많이 부여되어왔음을 드러내는 간접적 지표일 텐데, 이는 “1가구 1PC의 시대를 넘어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모바일게이머

이 가운데 특히 담론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주목되는 장소는 소셜미디어였다. 특정한 주제, 관심사, 지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달리 소셜미디어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된다. 그런 까닭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부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구축·공유하는 사용자 집단이 비교적 더 많은 수로 함께 기거하는 편이다. 이들의 타임라인은 보통 사용자 자신의 팔로잉/팔로워 관계로 구성되지만, 사용자끼리 서로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연결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들의 게시물 역시 공유되어 타임라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고, 누군가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면서 논평하기도 하며, 공유와 전파 등의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기록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 내 담론의 경합·생성에 기여한다.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기폭제”로서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반응들이 공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주된 통로로 삼았던 이유도 이 지점에서 기인한다. 이렇듯 지금의 매체적 조건은 여성주의적 담론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관련 저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디바이스의 발달로 (...) 게임에서의 남녀 성비 불균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변화가 게임 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현이 젠더 간 매체 사용 권한의 조건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신은서, 『여성게이머 지난 10년 간 두 배 증가, 게임업계 변화 이끌어냈다』, 『게임포커스』, 2020.11.06.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109869> (최종검색: 2022.11.20.); 또한 추가로 앞에서 잠시 살펴본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에서 여성 사용자의 절대적 이용 시간은 남성 사용자에 비해 꾸준히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전년도 대비 증감률에서는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중요한 시기인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여성 사용자의 이용 시간 증감률이 남성 사용자를 소폭 앞서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술 활동을 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여성주의적 차원의 기록물을 공유, 구독, 전파하는 등의 수행적 상호작용만으로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물론 반여성주의적 담론을 생성하려는 집단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리부트를 매체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성 사용자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담론의 생성 과정에 당사자로서 전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형태로 매체적 환경이 갱신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여성주의적 현상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체적 조건 위에서 생성된 (특히 여성주의적) 담론과 관계하며 제출된 문학적 글쓰기와 사유에는, 변화한 매체 환경에 따른 징후가 형식적으로든 내용상으로든 일정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 네트워크의 상황이 텍스트의 안팎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3. 『82년생 김지영』 분석

1) 서술자의 젠더와 기록의 문제

주인공 김지영이 문득 주변 인물들로 빙의하는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82년생 김지영』은, 그런 김지영이 1982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통과해왔는지를 일종의 보고서처럼 그려낸 소설이다. 이때 보고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가 아니다. 소설의 본문 곳곳에는 통계자료, 신문 기사 등의 각종 참고문헌이 각주와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내용이 김지영이라는 특정 개인의 일대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임에도 마치 이것이 비슷한 연령대와 출생 배경을 공유하는 여성 일반의 이야기처럼 읽히는 것은 위와 같은 소설의 스타일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소설을 향한 공격과 옹호의 전략에서 김지영은 특수한

개인이 아닌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호출되곤 한다. 이는 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82년생 김지영〉(김도영 감독, 2019)을 둘러싼 온라인 리뷰 및 평점 데이터를 분석한 여신과 김바로의 연구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¹⁷⁾ 온라인에서 작품에 가해지는 “비난을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동시대 남성들의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에 공감하는 이들 집단의 “나약함을 비판하고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82년생’보다 이전 세대 여성이 겪은 고난을 강조하여 “‘82년생’ 세대의 안락함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때 발견되는 특이점은 본 텍스트를 공격하는 집단은 단순히 작품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텍스트에 “공감하는 여성 집단까지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있다.¹⁸⁾ 이는 해당 텍스트를 추천하거나, 또는 심지어 단순히 독서·관람한 여성 연예인을 향한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¹⁹⁾

위와 같은 공격은 특정 세대 여성이 겪는 성차별적 고통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이면서, 수용자가 텍스트에 공감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김지영을 (여성 일반을 표상하고 대리하는 인물이 아닌) 예외적이고 현실 왜곡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 여기에는 김지영의 서사가 여성 보편의 것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한 시도로 일각의 독자들은 “내가 김지영이다”라는 식의 선언과 함께 작품을 옹호했으며, 이는 김미정의 말처럼 “타자로서의 김지영에 대한 공감이기 이전에, ‘자기’를 소설 속 주인공에게서 발견하고 거기에 이입함으로써 획득한 ‘당사자성’의 주장에 가까워 보”이는 면이 있다.²⁰⁾ 하지만 흥미롭게도 수용자들의 반응과 달리, 다시 김미정을 참고하자면, 이 소설은 존재의

17) 이 연구는 소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때 본 텍스트를 향한 대다수의 비판은 소설과 영화의 구분을 거의 두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기표 자체를 향한 공격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본 텍스트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반응으로서 소개하기에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신·김바로, 『우리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리뷰 분석』, 『인문콘텐츠』 제5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0.

18) 위의 글, 99쪽.

19) 이민정, 『‘82년생 김지영’ 읽었다는 여자 아이들에게 악플 쏟아진 이유』, 『중앙일보』 2018.3.20.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56087#home>(최종검색: 2022.11.20.)

20)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2017년 한국소설 연평』, 『문학달』 50권, 2017, 40쪽.

가시화를 통해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근대적 표상=대리=재현(representation) 전략의 전형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텍스트이기도 하다.²¹⁾

이는 서두에 잠시 언급되었듯, 이 소설의 본문이 김지영의 정신 상담의인 40대 남성 서술자의 시선 위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효과다. 이 사실은 소설의 마지막 장 첫 문장이기도 한 “김지영 씨와 정대현 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김지영 씨의 인생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 정도다.”²²⁾라는 상담의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거의 전 생애에 걸쳐 김지영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 모순, 그리고 그가 앓는 병의라는 증상이 모두 건조한 성격으로 서술되기 어려운 사건들임에도 소설이 보고서와 같은 침착한 문체로 서술된 것은 바로 그 까닭에서다. 결국 독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김지영의 주관적 경험이나 내면 심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해 들었다기보다는, 상담사-분석가의 언어로 재차 변환된 이차적 진술과 마주해왔던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잠시 살펴본 타자기 시대의 ‘남성 저자의 구술’과 ‘받아쓰는 여성 타자수’ 간의 관계는, 이 텍스트에서 표면적으로 역전된 것처럼 보인다. 비록 남편인 정대현의 진술도 일부 반영되었음을 밝혀두고 있으나, 중심적으로 이 소설의 본문은 여성 내담자인 김지영의 구술을 남성 상담의가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여성 작가가 구술하고 남성이 타자기로 기록했던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타자수와 달리 상담의는 김지영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지식에 기초하여 번안한 후 기록한다. 더 나아가 서술자는 김지영의 구술 일부는 정신의학적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거나, 또는 마치 일반적인 관점에서 신뢰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라도 하듯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각종 통계, 보도 자료 등의 근거를 각주로 병기하기까지 한다. 김지영의 모든 목소리는 이렇듯 남성 기록자의 청취를 통과하며 —정신의학적,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전문가적, 제도적 문법에 기초한— ‘보편의 언

21) 김미정,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288~292쪽 참조.

22)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169쪽.

어'로 번역된 이후에야 기록될 수 있었다.

물론 소설은 '보편의 언어'를 옹호하는 편보다는 정반대로 의심하는 쪽에 더 가깝다. 소설은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서술자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모순들을 비춤으로써 이를 드러낸다. 가령 서술자는 자신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²³⁾ 알고 있기에 김지영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외적 남성임을 자처하지만, 그는 실상 아내의 휴직에 기대어 경력을 이어가고 가사나 육아에는 기여하지 않으며 여성 상담사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추후 성차별적 고용을 고려한다. 이렇듯 소설은 상담의 역시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의 공모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러내어, 마치 보편적·객관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의 언어가 발화되는 위치를 비판적으로 시사한다. 객관과 보편을 가장했던 서술자의 관점은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구조로부터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자는 사실상 김지영의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며, 더 나아가 보편으로 가장된 남성 중심주의적 문법을 통해 그의 상황을 전달받은 것이 된다.

여기에 『82년생 김지영』의 역설이 내재해 있다. 남성 상담가가 김지영의 말을 보편의 언어로 번역하며 이해하고자 했을 때 비로소 정신병적 증상을 지닌 여성 개인의 일대기는 현대 한국 여성의 공통 감각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격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소설은 끝에서 이 보편의 언어를 송두리째 의심하도록 이끌며, 오히려 이 언어가 지금의 성차별적 구조와 얼마나 긴밀히 관계하는지를 비춘다. 상담가의 언어를 구축하는 상징체계와 문법에 부합하지 않는, 또는 이 체계를 초과하거나 포획되기 어려운 김지영의 경험은 기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을 것이다. 김지영의 고통은 이처럼 여성의 말과 경험을 사회적 차원에서 배제해 온 사회구조적 문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소설의 형식은 김지영 개인을 기록의 형태로 억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형식상 이 소설은 김지영의 목소리를 지운 김지영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23) 앞의 책, 170쪽.

물론 이러한 서술자의 문제에 관한 언급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양선은 본문에 통계 수치 등을 병치하는 소설의 기법이 “‘낮설게 하기’라는 형식적 혁신이기도 하지만, 이 혁신은 여성 자신의 말하기와 내면의 자리를 [남성 서술자에게] 내 준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²⁴⁾ 소설이 “남성 서술주체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한 김현·손병우의 관점도 대동소이하다. 남성 서술자에 기대는 기술은 김지영이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적 갈등과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지점들”을 다수 포함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김지영의 진술은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소설을 모두 읽은 독자는 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할까? 지금까지 읽은 김지영의 일대기가 ‘필연적인 왜곡’을 수반한 것이었다면, 따라서 이 보편의 언어 자체를 회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 언어에 담겼던 김지영의 생에 관한 내용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형식적으로, 이 소설의 구성은 라캉의 네 담론 가운데 특히 ‘분석가의 담론’ 공식을 떠올리게 한다.²⁶⁾ 분석가는 자신의 증상을 해명할 만한 마땅한 언어를 갖지 못했다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의 말을 상징화하고 되비추어 주체의 증상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분석가 담론에서 분석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감추고자 한다는 데 있다. 소설에서 상담의는 최초 김지영의 증상을 산후우울증에서 육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사례로 진단하지만 상담을 거듭하면서 판단을 유보한다. 물론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뜻이다”라는²⁷⁾ 표현에서 보듯, 상담의는 자신이 오판했거나 무지했음을 인정할 의도가 없다. 뒤이어 기

24) 대괄호는 인용자. 김양선, 『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 현상: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20, 286쪽

25) 김현·손병우,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소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99쪽.

26) 브루스 핑크, 『네 가지 담화』, 『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10 참조.

27) 조남주, 앞의 책, 170쪽.

술되는 “출산과 육아의 주체가 아닌 남자들은 나 같은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가 없는 한 모르는 게 당연하다”²⁸⁾ 대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다른 남성보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김지영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조강석은 아무리 보고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사가 통계자료를 보충해서 기입할 까닭까지 납득하기는 어렵다”²⁹⁾ 각주를 병기하는 본 소설의 설정이 지닌 과잉의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위 관점을 적용한다면, 이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남성 분석가의 과장된 수행으로 독해해볼 수 있다. 한편 니체가 “우리의 필기도구가 우리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다”³⁰⁾라고 썼던 것을 떠올린다면, 소설의 본문은 서술자인 남성 상담의 기록 도구인 컴퓨터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무지를 매우고 위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술자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검색 가능한 객관적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실로 기묘한 우연이 아닐까? 바꿔 말하자면,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 지식, 말, 추론 등의 내적 종합을 통해 김지영의 진술을 해석하기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 데이터들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보충하고자 하려는 것이 과연 매체적 조건과 무관하겠느냐는 물음이다.

이렇듯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은 — 자신이 불완전한 지식에 기대고 있음을 감추는 — 분석가의 실패다. 본인이 가진 정신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여성을 둘러싼 (여기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세상”에 관한) 사회학적 지식과 정보를 통해 김지영이라는 환자의 구술을 보편의 언어로 번안하려 했지만, 소설은 실상 이러한 담론 구조 자체가 실패를 담보할 수밖에 없음을 지시한

28) 같은 곳.

29)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정치적·윤리적 울바름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단상』, 『틀린의 기동』, 문학과지성사, 2021, 102쪽.

30) 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 360쪽에서 재인용. 여기서 키틀러는 니체가 시력의 문제로 타자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의 글쓰기가 “논증에서 이포리즘으로, 사유에서 단어 유희로, 수사에서 전보 문체로 옮겨 갔다”(364쪽)는 점을 들어 니체의 전언을 긍정한다.

다. 추가로 그와 무관하게 라캉의 관점에서 본다면, 텍스트 속 분석가의 분석은 그 자체가 이미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라캉은 내담자가 지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그가 자신의 증상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 점을 가리킨 바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증상과 대면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또는 증상으로 부터 쾌락을 향유하는 등의 이유로 분석가의 해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무지의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무지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해석의 욕망을 품을 수 있으려면, 분석가의 언어는 해석의 여지와 다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라캉의 주장이다.³¹⁾ 이는 소설 속 서술자가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구사하는 언어와는 분명 다른 성질의 것이다.

김지영의 증상은 와해될 수 있을까?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상담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상담 과정에서 김지영과 상담의가 나눈 대화 역시 독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김지영과 같은 증상은 아니더라도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텍스트로부터 자신을 발견하는 독자들을 내담자의 자리에 놓았을 때, 상담의의 기록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듯하다. 선우은실이 본 텍스트의 한계로 “약자 여성”이라는 사실의 확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적시한 바 있듯³²⁾, 서술자의 기록은 사실 확인 너머의 해석적 욕망을 생성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는 김지영을 분석하는 데 다각도로 실패한 분석가의 기록인 셈이다. 이처럼 김지영의 말을 보편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사안과 관계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검색·연결하고자 했던 남성 상담의의 시도는, 상담의의 기록 도구였을 컴퓨터가 그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 결과였다.³³⁾

31) 이상의 내용은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참조. 세부적으로 분석 주체(내담자)의 무지에 대한 욕망에 관해서는 17~25쪽, 분석가의 해석 언어가 다의성을 지녀야 한다는 대목은 86~89쪽을 참조했다.

32) 선우은실, 『객관 현실과 소설적 해석, 그리고 문학적 전망』, 『문학과사회』 2017년 여름호, 257쪽.

33)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현재의 담론 네트워크 속에서 일부 남성 사용자 군집이 담론을 생성하는 과정의 유비처럼 읽힌다. ‘팩트’(fact)를 중시하며 관련 정보 데이터들의 열거와 연결을 수행함으로써 사안을 해석하고 담론을 펼치려는 태도와 원칙을 이른바 ‘팩트주의’라고 일컫는데, 기존의 합리와 이성의 자리를 팩트로 대체하려는 위 경향성은 한국에서는 특히 남성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두루 발견된다. 팩트주의라는 용어와 이러한 경향이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따른다면 이 소설은 동일시를 끌어내는 텍스트라 보기 어렵다. 소위 ‘문제적 개인’을 내세워 그의 내면, 목소리, 존재를 표상 및 대리하는 근대소설의 문법에서 이 텍스트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 소설을 둘러싼 대중의 일련의 반응은 마치 김지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표상=대리=재현의 문제처럼 비친다. 텍스트가 지닌 어떤 요인이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잇고자 한다.

2) 표상에서 표출의 논리로

앞에서 잠시 제기되었던 물음에서 출발해보자. 살펴보았듯 이 텍스트의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보편의 언어라는 것 자체를 회의하도록 이끈다. 그렇다면 이 언어에 담겼던 김지영의 생애 전반에 관한 내용을 독자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언어의 형식과 내용을 깔끔하게 분리하여 후자만 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일 테다. 그렇다면 김현·손병우는 이 텍스트가 내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여성들의 연대에서 찾는다”고 진단했지만, 이는 약간의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³⁴⁾ 우선 표면적인 내용에서도 그렇다. 물론 텍스트에서 여성들은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무릅쓰면서 서로를 돕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연대로부터 김지영 또는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여성 일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가능성이 암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끝에 김지영이 얻게 된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는 거리가 먼, 빙의라는 증상이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기록 형식이 독자에게 앞서 읽은 김지영에 관한 서술 전반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결의 실마리”로 제출되었던 내용 역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참조.

34) 김현·손병우, 같은 곳.

생긴다.

사내 화장실 도촬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김은실 팀장과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사측에 책임자 처벌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 대목은 이 텍스트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그려진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남성인 대표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조용히 덮을 것을 이들에게 종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러한 조치 사실이 대외에 알려지면 회사의 평판과 더불어 가해자 남성의 가정과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며 피해자 여성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또는 이를 계기로 소문이 나 도촬된 사진이 더 많이 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등 염려를 빙자한 사실상 협박을 가한다. 여성들의 연대는 이러한 압력에 맞섬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실 김은실 팀장도 두렵고 지쳐 있었다. 김은실 팀장도, 강혜수 씨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가해자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³⁵⁾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는 여성들의 연대가 끝내 바리는 것은 인용문에 나타나듯 일상으로의 회귀다. 물론 사내 예방 교육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가 부과되기는 하겠으나, 근본적인 모순은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들이 다행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여성으로서 쉬이 마주하게 될 차별과 폭력의 불안이 상시 잠재해 있다. 김은실 팀장이 “원하는 여직원들을 짝 데리고 나가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했던 것은³⁶⁾, 사내의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보다는 그편이 훨씬 더 쉬운 선택지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보듯, 여성들의 연대나 피해자의 일상 회복 등은 모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이 틀림없으나, 이것만으로는 본 텍스트가 남성-분석가라는 기록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환기한 근본적 문제의

35) 조남주, 앞의 책, 156쪽.

36) 위의 책, 155쪽.

식을 해소하기 요원하다.

결국 텍스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여성 연대가 문제(증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입과 동일시의 독법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선우은실의 표현처럼 “약자 여성”이라는 사실의 재확인에 가까울 따름이다. 물론 자신의 소수자성과 약자성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일은 정체성 정치에서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지만, 텍스트에 기록된 내용에 국한한다면, 문제는 이러한 소수자성은 좌절의 요건으로 그려질 뿐 불행히도 가능성의 자리로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된 바 있는 ‘내가 김지영이다’처럼 일종의 당사자성에 해당하는 이입과 선언이 —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이입과 선언을 전략적으로 방해하는 수행이 —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들은 어떻게 김지영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또한 (여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언어로 쓰인 기록으로부터 오히려 자신과 시대를 발견하고 이입하는 역설적인 텍스트 수용 현상을 보일 수 있던 것일까? 이때의 선언은 자신의 약자성을 확인하는 자포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보인 이와 같은 방식의 이입과 수용은 소설이 단지 대다수 1980년대생 한국 여성이 겪어온 성차별적 경험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김지영의 경험들은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는 한국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만한 사항이기는 하나, 여성 독자 모두가 소설이 쓰고 있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테다. 누군가는 김지영의 경험 일부는 겪어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반대로 김지영의 경우를 훨씬 초과하는 방식의 경험을 간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 아닌 형식이다.

일반적인 논의에 비추다면 이 텍스트는 여성 개인의 존재, 경험, 목소리를 배제하는 (가정된) 보편의 언어를 문제 삼으면서도,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만 각자의 경험을 실재하는 것으로서 기록·발신할 수 있는 현대 여성들의 이중적 곤란함을 형식 차원에서 비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본 텍스트를 실패한 분석가의 기록으로 보았지만, 혹자는

이 소설이 구사하는 기법 자체에서 어떤 미학적 실패를 적시하기도 한다. 대표적 논의로, 조강석은 이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다수의 스타일을 무매개적으로 혼합하고 병치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핀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소설은 “상황을 개괄하는 관점이 부여된 스타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통계의 스타일 (….) 그리고 다시 상황을 재연하는 스타일” 이렇게 세 스타일을 뒤섞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³⁷⁾ 실제로 소설의 본문은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되나, 여기에 더해 때때로 통계가 아닌 ‘서술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상황을 해석하는 스타일’이 부여된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분야든 기술은 발전하고 필요로 하는 물리적 노동력은 줄어들게 마련인데 유독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전업주부가 된 후, 김지영 씨는 ‘살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고 난이도를 후려 쥐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받들면서 좀처럼 비용으로 환산하려 하지 않는다. **값이 매겨지는 순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겠지.**(강조는 인용자)³⁸⁾

인용문에서 강조된 대목은, 가사 노동에 관한 현실 상황을 개괄하고 이에 관해 김지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에서는 앞선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서술자가 남성 상담의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용문 속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면 툰에서의 차이가 다소간 감지되는데, 이는 줄곧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며 기록을 수행하던 서술자가 문득 앞에서 기술한 상황(내적) 독백의 형태로 해석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김지영이 진술하는 그의 경험과 내면을, 여러 정보 데이터와의 교차 연결을 통해 보편의 언어로 번역·기록하고자 했던 서술자는, 어느 순간 거리감을 상

37) 조강석, 앞의 책, 104쪽. 조강석의 비판은 이와 같은 소설의 무리한 기법이 플롯의 논리를 손상케 하고 더 나아가 “전경화된 외재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설의 ‘실효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향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스타일에 관한 그의 논의만을 집중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38) 조남주, 앞의 책, 149쪽.

실하기라도 한 것처럼 김지영의 일대기에 본인의 내적인 말을 독백의 형태로 함께 적어 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키고 가필하는 행위이다.

물론 분석가가 자신의 소견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으나, 인용문에서 보듯 기록된 독백의 내용은 정신의학적 소견의 성격과는 분명 거리가 멀다. 또한 남성 상담의 내적 독백은 표면적으로 마치 김지영의 내면처럼 읽힌다. 이렇듯 소설은 상담의가 마치 김지영에게 빙의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언뜻 노출한다. 이것은 서술자가 무의식적으로 김지영에 이입 또는 동일시(identification)하고 있다는 증거일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는 과잉 해석일 것이다. 서술자가 김지영에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해당 내용으로부터 찾기는 어려우며, 단적으로 서술자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기록하는 스타일의 출현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자가 적어도 정서적 차원에서 김지영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김지영의 삶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서술자는 김지영이 느꼈을 정서를 따라 느끼며 이를 기록의 과정에서 불식간 드러냈다. 이 서술자의 반응은 스피노자가 말한 정서의 변용(affectation)에 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³⁹⁾

이러하면 우리는 이전까지 “어떤 정서도 갖지 않았던” 상대라 할지라도 그가 감격하는 모습, 또는 반대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면 그 상대가 가질 법한 정서를 따라 느끼며 마음의 변용을 일으킨다. 아마도 『82년생 김지영』은 후자에 해당할 텐데, 주지하다시피 스피노자는 이를 “정서의 모방”(imitation of emotions)이라 불렀다.⁴⁰⁾ 눈여겨볼 지점은, 이러한 정서의 모방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문법이 지금의 담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

39) “(3부) 정리 27. 우리와 같으면서, 우리가 어떤 정서도 갖지 않았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에 의해 그것이 변용된다고 우리가 상상할 때면, 우리 역시 동일한 것에 의해 변용된다.”(Although we may not have been moved toward a thing by any emotion, yet if it is like ourselves, whenever we imagine it to be affected by any emotion, we are affected by the same.) Benedict De Spinoza, *Ethics*, Trans. James Gutmann, Hafner Publishing Company, 1954, p.147.

40) *Ibid.*, p.148.

치를 차지하는 인터넷의 대표적 속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구축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은 대개 ‘전체’로서의 기록물이 발행 및 수용되는 곳이기보다는, 수많은 사용자가 (단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조각’ 형태로 각자의 마음을 표출하고 이를 확산·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 때문에 미디어학자 이시다 히데타키는 현대의 인터넷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모방과 변용에 주목했던 스피노자로의 회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⁴¹⁾

김미정 역시 이 소설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근대적 재현=대표=표상(representation) 체계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독자의 욕망과 정동”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다.⁴²⁾ 이러한 관점에서 소설을 다시 읽으면, 텍스트의 서술 스타일은 소설미디어의 풍경과 다소간 겹쳐 보인다. 한 페이지에서조차 다수의 스타일이 혼합·병합되어 서사를 구축하는 텍스트의 형식은, 어떤 점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구축한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피드들—예컨대 사회적 현상이나 타자의 상황을 개괄하는 게시물, 관련 보도 자료 또는 통계 등의 링크 게시물, 사용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경험 등을

41) 石田英敬, 東浩紀, 『新記号論: 脳とメディアが出会うとき』, ゲンロン, 2019, p.293.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시다는 현대사회에서의 ‘집단성’의 문제는 20세기에 널리 수행되어온 이데올로기 비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세기의 기록시스템을 구성해온 축음기, 영화, 타자기 등의 아날로그적 매체 조건으로부터 생산된 집단성의 형상은, 문자 그대로 “덩어리”(mass)로서의 대중이 문화상품으로 제작된 표상물 앞에 모여드는 모습에 가까웠다. 이때의 집단성을 해명하기 위해 당대 지식인들은 프로이트의 동일시 모델과 같은 표상의 이론을 빌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이시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든다. 전통적 지식인들은 트럼프의 이데올로기가 사실 가난한 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얼마나 신자유주의적 인지를 논파함으로써 그가 대중을 기만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는데, 이시다는 이러한 ‘동일시’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비판이 거의 통하지 않은 이유가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대중이 실제 그의 정책적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트럼프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반드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전체로서의 ‘표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든 채 자신들이 가진 불만의 정서를 ‘표출’(expression)하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대중을 향해 퍼뜨린 발언이나 몸짓의 조각으로부터 “감정의 감염”,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적인 정동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시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직접적인 언어의 기록뿐만 아닌 언어로 보이지 않는 행위 데이터의 기록들이 심층에서 증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소셜미디어의 감정 표현(좋아요, 공유, 추천 등) 인터페이스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한히 증식·전파하는 오늘날 달론 네트워크의 양상은 정서적 감염의 형태와 깊은 유사성을 지닌다. 같은 책, p.300 참조.

42) 김미정, 앞의 글, 286쪽.

기술한 게시물 등등—이 무매개적으로 혼합 병렬되어 타임라인을 이루는 소셜미디어 화면과도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성학자 센다 유키는 일본에 번역된 이 텍스트를 두고 “복선을 회수하지도 않는 것이 놀라운 (...) 트위터 소설”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⁴³⁾ 이 비판은 소설의 문학성을 향한 것이기는 하나, 이 소설의 형식 자체가 소셜미디어의 그것과 상당 부분 친연성을 공유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조남주 작가는 한 강연에서 소설을 집필하던 “2015년 즈음 (...) SNS나 블로그, 취준생 카페, 고등학생 카페, 엄마 카페 같은 곳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서 주로 그걸 읽었”으며 “그 중에 ‘아, 나도 그랬지. 많이 들어봤지.’라고 느끼는 특별하지 않은 사례를 취합”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⁴⁴⁾ 이때 작가가 인터넷에 게시된 기록들을 통해 참조하고자 했던 것은 소설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였을 테지만, 주목할 사항은 형식의 참조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가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수행했던 과정 일부는—온라인에서 여성 사용자들이 남긴 말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을 취사선택하고, 해당 사안을 해석하는 통계를 검색하여 소설에 함께 기록하는 작업—공교롭게도 소설 속 서술자인 남성 상담의가 김지영의 말을 듣고 기록하기까지의 과정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필기도구가 우리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다”는 명제는 저자의 집필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착근해 있었다. 남성 상담의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빙의하여 김지영이라는 개인이 전 생애를 걸쳐 겪어온 성차별적 경험과 고통을 보편의 언어로 기술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글쓰기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본래 저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드러나듯, 기술의 과정에서 상담의(또는 상담의에게 빙의한 저자)는 무의식적으로 문득 김지영의 진술 위에 본인의 내면을 포갠다. 이것을 다양한 스타일의 피드 간의 병치 속에서 타임라인과 담론을 구성하고, 표출의 논리에 따른 ‘정서적

43) 千田有紀, 『週刊讀書人』, 2019.12.20.: 김미정, 위의 글, 302쪽에서 재인용.

44) 한재연, 『조남주 “세상이 얼마나 여성을 지워왔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2017 예스24 여문문학학교’ 마지막 강의 조남주 소설가, 노회찬 의원 ‘우리네 삶을 그린 소설 읽기』, 『채널예스』, 2017.9.11. <http://ch.yes24.com/article/view/34275>(최종검색: 2022.11.20.)

감염'의 기제를 바탕으로 추동되는 디지털 시대의 담론 네트워크의 풍경이 '저자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 하나의 징후라 말할 수는 없을까?

3) 기록에서의 시차와 공감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재현적 논리에 입각한 사실들의 나열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텍스트의 수용이 '재현=대표=표상의 체계' 논리로 수렴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표출의 체계가 이 글쓰기의 형식과 사유의 과정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만큼 강력히 관여했기 때문이겠다. 그렇다면 '내가 김지영이 대라는 구호는 엄밀히 따진다면 '나는 김지영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자'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텍스트를 향한 온라인에서의 많은 비난들이 텍스트 자체보다는 '공감하는 여성 집단'을 겨냥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

'공감'은 이 소설을 둘러싼 현상을 소개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에 해당할 것이다. 이 텍스트가 독자 대중의 공감적 측면을 자극한다는 주장은 분명 사실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 공감 사이에 괄호로 생략되어 있던 문제, 다시 말해서 정작 김지영의 목소리가 없는 김지영의 이야기로부터 독자들이 어떻게 폭넓은 공감—또는 정반대로 공감에의 방해 등등—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시차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자 한다.

김미정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이 "기존 남성젠더화 되거나 지식권력이 담당하는 게이트키퍼 공론장의 대안으로 기능"한 측면을 일부 지니고 있으며, 본 소설을 둘러싼 현상에 가까운 반응들은 이러한 대안 공론장 속에서 구축된 여성 대중의 정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⁴⁵⁾ 이 글에서는 대안 공론장의 등장과 더불어, 해당 공론장 안에서의 기록 권한을 둘러싼 젠더적 시차가 줄어들게 된 2010년대 이후의 상황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부기

45) 김미정, 앞의 글, 304쪽.

했다. 더 자세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모바일 장치의 대중화로 인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한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매체와 대응함으로써, 시공간을 떠나 사용자에게 전적인 매체 사용 권한이 주어지게 된 조건이 온라인에서의 담론 생산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요지였다.

실제로 대안 공론장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이 최초 등장한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90년대 PC통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온라인 공론장의 성격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차별화된 명명이 필요할 만큼 확실히 이질적이다. 참고로 작가는 다른 인터뷰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제 의식을 정면에서 다루는 소설을 쓰고자 했느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한 적이 있다.

네, 처음부터 정면을 생각했어요. 2015년에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접하고 이제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전에는 혼자만 생각하고 바깥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걸음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말하고 연대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쓴다 해도 심한 거부 반응이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라고 하지 않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판단했어요.⁴⁶⁾

위 답변에서 “이제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실감은 작가가 이 텍스트를 쓰도록 이끈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작가는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소셜미디어로부터 접한 것이 대표적인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대안 공론장에서조차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라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송수신해왔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 여성(주)의 담론 생산의 단절적 전환이 일어난 이유는 물론 복합적일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나 계기가 될 만한 사건들의 영향과 더불어,

46) 정세랑·조남주, 「어긋난 틈 위에 똑바로 서서」, 『릿터』 5호, 2017, 113쪽.

특히 매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 토대의 전환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하려는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훌륭한 비판적 논설을 한 편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의 기록 조건에서는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기록의 수행으로 이어진다. 이곳에서의 담론은 기록하는 인간과 더불어 — 페이지 링크, 검색 결과, 연관 검색어 등을 처리하는 등의 — 기계적 알고리즘이 더불어 작업한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필기도구가 우리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다”는 명제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담론들은 재귀적으로 사용자에게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 또는 ‘이제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암묵적인 문화적 규칙을 구성한다. 이때 스마트폰은, 이미 형성된 담론과 문화적 규칙에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사용자 집단의 미묘하게 뒤늦은 시차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기록 도구로 기능한다. 이것은 젠더 간 시차를 흐리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사후적인 참여가 아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실시간적 선언을 통한 젠더 담론 생산의 가시적 촉발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데에는 이러한 물질 토대의 변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다.

그러므로 센다 유키가 이 소설을 향해 거론했던 “트위터 소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이 아니기도 하다. 이때 그의 표현은 이 텍스트가 (“복선을 회수”하는 등의) 치밀한 소설적 구성을 지니기보다는 트위터에 게시되고 호응을 얻는 사회적 소재·일화들을 엮은 형태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유통·소비되는 양상을 겨냥한 흑평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른 각도에서 이 명명을 차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하다. 작가의 집필 기획부터 탈고의 과정까지, 더 나아가 독자들의 수용과 반응에 대한 기록에 이르기까지 트위터와 같은 스마트폰 중심의 소셜미디어 등의 기록 조건이 작가/독자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흔적을 명백히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텍스트를 “‘이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으로의 전환을 도모”⁴⁷⁾하는 소설이라 규정한 조강석의 전언을 기록의 관점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뒤집어 본다면 어떨까? 이 텍스트는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을 (‘문학’과 같은 전통적 지식 기록 형식의) ‘이는 것’으로 전환하는 소설이라고. 물론 조강석의 규정은 이 텍스트가 1982년생 여성이 겪어온 성차별적 경험과 고통들을 디테일하게 보고함으로써 “우리가 ‘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지(既知)의 영역에 무의식적으로 이송해놓은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⁴⁸⁾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에서의 전도가 그의 전언의 맥락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이 소설은 앞에서 살펴본 작가의 집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도 ‘보는 것’을 ‘이는 것’의 형태로 전환한 결과이기도 하며, 텍스트 내부에서 이것은 남성 상담가가 ‘듣는 것’을 ‘이는 것’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때 소설이 서사를 통해 형상화하는 것은 한 여성의 구술을 ‘이는 것’으로의 전환하려는 시도가 노정하는 실패다.

‘이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조강석의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이 텍스트가 중국적으로는 다시 ‘이는 것’으로 향하리라는 의지를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는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곧 기존까지의 ‘이는 것’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지의 영역에만 두는 것이 아닌 실천의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으로부터 ‘이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진단에서도 화살표의 곡선은 결국 ‘보는 것’으로의 회귀를 가리킬 것이다. 단지 ‘이는 것’으로의 전환만으로는 증상에 온전히 이를 수 없으며, 심지어 기존 보편의 언어 문법에 입각한 지식화를 도모할수록 우리는 더욱 김지영의 목소리와 존재를 이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는 것’으로의 회귀에 내포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무엇을 보고 그에 따라 정서의 변용을 주고받아온 이전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너머의 확장 가능성을 지목해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가능성은 ‘김지영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자’들의 수, 기

47) 조강석, 앞의 책, 102쪽.

48) 조강석, 같은 곳.

록, 연결, 접속들이 실시간적으로 담론 생성에 더 많은 개입을 이루어낼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발견되었던 이 소셜 현상에서 독자들의 담론이 실시간으로 경합했던 지점이 특히 ‘공감’에 집중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82년생 김지영』 현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당사자성, 공감, 이입 등의 수사가 동원되곤 하나, 살펴보았듯 오히려 이 텍스트는 김지영의 목소리를 지우고 오히려 분석가의 실패를 그려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식의 동일시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소설이 ‘재현=대표=표상의 체계’의 논리로 독자들을 수렴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폭적인 공감과 정서의 변용을 끌어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기록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안팎을 분석해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크게는 오늘날 디지털 담론 네트워크의 상황과 문학 사이의 관계를 범박하게나마 고찰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센다 유키가 사용한 ‘트위터 소설’이라는 표현은, 비록 이 글에서는 “우리의 필기도구가 우리의 사유와 더불어 작업한다”는 니체의 전언이 텍스트에 드러난 바를 지시하기 위해 일부 전유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최근 발표되는 소설들이 보이는 일련의 경향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이때의 비판은 문학이 현실을 새로이 바라보고 다양한 전복적 실험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미 제기된 담론들을 사후적으로 추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학이 자체적 미학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전환을 전위에서 도맡기를 바라는 요구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시간 문학이 수행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다만 매체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학을 향한 기대 지평에

도 다소간의 변동이 불가피해지리라는 점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노 츠네히로는 한 강연록에서 “1970년대부터 2000년경까지는 매스 미디어의 문화,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서브컬처에 대해 논하는 것”이 곧 일본 “사회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⁴⁹⁾ 일본의 시대별 인구 분포, 정치적 사건, 세계적인 사회문화적 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을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그는 대중매체(특히 텔레비전)의 강력한 영향력이 “세대의 공통 언어로 기능”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⁵⁰⁾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시대가 1인 미디어의 시대로 옮겨가고, 무엇보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서브컬처의 대상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 더는 서브컬처가 젊은 층을 대표하는 문화와 매체가 아니게 된 까닭에 이제는 서브컬처를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이나 LINE”과 같은 IT 분야에 관해 논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 우노 츠네히로의 주장이다.⁵¹⁾

소설이 젊은 층의 매체이자 문화였고, 소설을 읽고 말하는 것이 곧 한국 사회를 논하는 것과 직결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기록의 조건, 그리고 담론이 생성되는 네트워크의 체계가 변화한 지금 소설을 향해 한결같은 성격의 기대를 걸기란 다소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소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이것은 기술결정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문장으로 악명이 높은 『축음기, 영화, 타자기』 서문의 첫 문장이다. 키틀러는 이 문장 옆에 나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적는다. 오늘날의 담론 네트워크 체계가 소설 안팎의 상황을 결정하는 현상이 목격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소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욱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표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한들 이 텍스트의 기동은 여성의 현실이었으며, 현실이란 어떤 식으로든 결국 문학의 출발지이자 귀착지이기 때문이다.

49) 우노 츠네히로, 『젊은 독자를 위한 서브컬처론 강의록』, 김현아, 주재명 옮김, 위크라이프, 2018, 36쪽, 38쪽.

50) 위의 책, 36쪽.

51) 위의 책, 40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2. 단행본

브루스 핑크, 『리랑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_____, 『리랑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10.

우노 츠네히로, 『젊은 독자를 위한 서브컬처론 강의록』, 김현아, 주재명 옮김, 위크라이프, 2018.

이시다 히데타카,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윤대석 옮김, 사회평론, 2017.

이시다 히데타카·東浩紀, 『新記号論: 脳とメディアが出会うとき』, ゲンロン, 2019.

조강석, 『틀린의 기동』, 문학가지성사, 2021.

존 더럼 피터스, 『자연과 미디어』, 이희은 옮김, 컬처북, 2018.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윤원화 옮김, 문학동네, 2015.

_____, 『축음기, 영화, 타자기』, 유현주, 김남시 옮김, 문학가지성사, 2019.

Benedict De Spinoza, *Ethics*, trans. James Gutmann, Hafner Publishing Company, 1954.

Bernard Stiegler, *Technics and Time, 1*, trans. Richard Beardsworth & George Colli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3. 논문 및 정기간행물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50권, 2017.

_____,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양선, 『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 현상: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현·손병우,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소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선우은실, 『객관 현실과 소설적 해석, 그리고 문학적 전망』, 『문학과사회』 2017년 여름호.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여신·김바로, 『우리는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리뷰 분석』, 『인문콘텐츠』 제5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0.

유현주, 『키틀러와 젠더: 담론의 채널에서 여성은 매체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6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19.

정세랑·조남주, 『어긋난 틈 위에 똑바로 서서』, 『릿터』 5호, 2017.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Sybille Krämer, "The Cultural Techniques of Time Axis Manipul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3.7-8, 2006.

4. 기타 자료

신은서, 「여성게이머 지난 10년 간 두 배 증가, 게임업계 변화 이끌어냈다」, 『게임포커스』, 2020.11.06.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109869>

이민정, 「'82년생 김지영' 읽었다는 여자 아이돌에게 악플 쏟아진 이유」, 『중앙일보』 2018.3.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56087#home>

한재연, 「조남주 “세상이 얼마나 여성을 지워왔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2017 예스24 여성문학학교’ 마지막 강의 조남주 소설가, 노회찬 의원 ‘우리네 삶을 그린 소설 읽기」, 『채널예스』, 2017.9.11.
<http://ch.yes24.com/article/view/3427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2-2018 스마트폰 사용률, 현재 사용 & 향후 구입 예정 브랜드」, 2018.7.2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1D0511R&conn_path=2

Writing, Time difference, Gender

–Reading *Kim Ji-young, Born 1982*
from the perspective of writing and media –

Kang Soohwan*

The terms ‘parties involved’, ‘sympathy’, ‘empathy’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Kim Ji-young Born in 1982*. However, paradoxically, this text employs a male psychiatrist as the narrator to exclude Ji-Young Kim’s genuine voice and inner world, making it challenging for the reader to identify. In order to understand why the text succeeded in capturing the readers’ complete sympathy and affection rather than assimilating them into the logic of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this paper analys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text from the viewpoint of writing and media. In that sense, this paper primarily analyzes *Kim Ji-young, Born 1982*, but it also aims to look at how literature and the situation of the nowadays digital discourse networks relate to one another. There has been a subtle fundamental shift in online discourse networks as smartphone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than personal computers(PC).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smartphone, unlike a PC, provides the user full freedom to use it without any time or space restrictions as one person responds to one media. In contrast to the time when discourse was constructed around the gender group, who on average had more exclusive ownership of PCs in the home,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produced new material conditions. The offset of the ‘time difference of gender’ is pointed out as the resulting effect. This

* Lecturer,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 Management, Inha University

paper examines the impact that the above-mentioned change in the discourse network condition had on the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this text.

Key words: *Kim Ji-young, Born 1982*, media, writing, time difference, gender, discourse networks